



보도 일시	2022. 12. 2.(금) 11:30	배포 일시	2022. 12. 2.(금) 09:30
담당 부서	복권위원회 사무처 복권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종훈 (044-215-7810)
		담당자	사무관 오두현 (yggdrasil@korea.kr)

온라인복권(로또 6/45) 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개최

- 차세대복권시스템 개발 및 법정배분제도 개편방향 등 논의 -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온라인복권(로또 6/45) 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 '22.12.2일(금) 10:00부터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 2002.12.2. 온라인복권(로또 6/45) 판매 개시, 2002.12.7. 최초 추첨
 - 이번 토론회는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및 복권기금 운용체계 효율화 방향 등 복권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됨
- 최상대 복권위원회 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은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통해
 - 복권위원회가 지난 20년간 복권의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저소득·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운용으로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제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 이번 토론회에서 온라인복권 시스템 고도화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방향 등 복권사업과 기금운용체계를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자유롭고 격의없는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당부하였음
- 복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 차세대 복권시스템 개발 추진방안과 복권기금 사업이 국민의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임

붙임: 복권위원회 위원장(기획재정부 2차관) 축사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 정책토론회

2022. 12. 2(금) 10:00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

축 사

2022. 12. 2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장
최 상 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상대입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김동욱 교수님, 남호정 교수님,

이은정 교수님, 이준봉 교수님 등 전·현직 복권위원님과

토론 진행을 맡아주신

이연호 교수님, 하연섭 교수님을 비롯하여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복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기금이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참석하신 토론자, 내외빈 여러분의

자유롭고 격의 없는 논의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외빈 여러분!

오늘은 지난 2002년 12월 2일
온라인복권 판매가 시작된 이후
20주년이 되는 날이며,

2004년 4월 복권위원회가 출범된 지
18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복권위원회는
온라인복권 도입 당시
대박·인생역전 등 로또 광풍의 부작용을 막고
복권이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도는
2008년 최초 조사시 54.2%에서
2021년 조사에서는 73.7%로 상승하여
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04년 복원기금 설립 당시
연간 9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던
저소득·소외계층 지원 사업비가
2022년에는 3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외국산에 의존하던
복원발행시스템을 국산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사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여
미래의 혁신과 도약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복원제도 시행 20년간의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복원사업과 기금운용체제를
더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여
향후 20년을 준비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복권사업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권사업운영, 발행구조 등
복권사업체제 전반을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제 중에 하나로,
우선 글로벌 IT기술 추세에 따라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하여
복권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복권시스템은 일정주기 간격으로
하드웨어 장비를 전면 재구축하는 방식이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기능별로 분리된 시스템을 통합하고
최적의 클라우드 모델을 도출한다면
복권 발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뿐만 아니라,
복권시스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로, 2004년 복원 및 복원기금법 시행 이래
약 29조원의 복원기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을 수행해온 바 있으나,

앞으로도 복원기금의 공공목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재정의 보충적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복원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원기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사업도
연례적·관행적인 지원을 탈피하여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외빈 여러분,

오늘 이 토론회에서

우리의 복원정책이 나아가야할 길에 대하여
정답을 바로 찾을 수 없다 하여도,

여러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이 토론회가

앞으로의 20년간

복원사업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가

복원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기탄없는 토론과 논의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